

19세기 말 해요체와 해체의 사용양상
—한국어 학습서 『新撰朝鮮會話』의 용례를 바탕으로—

白 京始, 李 吉鎔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e features of Hayyo-chey(Hayyo-style) and Hay-chey(Hay-style) analyzing the examples of “Shinsen Chosenkaiwa”(『新撰朝鮮會話』), published in Japa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written by Seokhyeon Hong, an upper-class intellectual of Joseon Dynas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1) Hayyo-chey and Hay-c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l colloquial style. (2) ‘-a/eyo’ in Hayyo-chey might be presented as the role language of the “female language” and “child language”. (3) Expressing the speaker’s emotion was presented by ‘-a/eo’ in Hay-chey; however, it does not seem impolite because of their weak hearer-ori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analysis. Therefore, ‘-a/eo’ functions as a down style-shift to indicate friendliness. (4) Hayyo-chey and Hay-chey were mixed with other honorific levels, indicating that there was a stylistic variation within a discourse in which the speaker chose more than one honorific level according to the hearer or the situation.

키워드 : 19세기 말 청자대우법, 말투 변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하향식 말투 전환, 여성어

1. 머리말

해요체와 해체는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청자 대우등급이다. 그러나 불과 10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요체와 해체는 정식 대우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19세기 말에 쓰인 자료에서 청자 대우등급을 살펴보면 하오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해요체와 해체가 극히 일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경우 1994, 민현식 1999).

본 연구에서는 해요체와 해체가 처음 사용되었던 19세기 말의 용례를 바탕으로 당시 해요체와 해체의 쓰임을 고찰하여 해요체와 해체의 정착 과정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려고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19세기 말에 조선의 상위 계층 지식인이었던 홍석현이 저술하여 일본에서 출판한 『新撰朝鮮會話』(1894)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新撰朝鮮會話』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新撰朝鮮會話』의 제작 시기는 1894년으로 이는 갑오개혁이 일어난 해이다. 갑오개혁은 신분제의 폐지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개혁이면서 그와 동시에 외국을 통해 새로운 어휘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한국어사적으로도 근대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용되기 시작했던 해요체와 해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19세기 말의 해요체와 해체를 다룬 연구에는 이경우(1994), 민현식(1999), 윤나영·한영균(2020)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용례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서라는 새로운 분석 대상을 지정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해요체와 해체의 쓰임에 대해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서를 제작할 때는 학습자를 위해 전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례가 어느 정도 선별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청자대우법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新撰朝鮮會話』는 일본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서 중에서는 드물게 조선인이 제작한 교재로 다른 한국어 학습서에 비교해 발화가 비교적 자연스럽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新撰朝鮮會話』가 발간된 1894년은 청일전쟁이 발발한 해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군 목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학습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¹ 당시 제작된 교재는 대부분 비모어화자에 의해 발간된 것들이었으나 『新撰朝鮮會話』는 조선인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책의 구성 자체도 일상 회화를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청자대우법을 관찰하기에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新撰朝鮮會話』에 등장하는 용례를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로 나누어 대우등급의 분포를 분석한 후 당시 해요체와 해체의 사용빈도를 조사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발화자의 성별, 청자와의 관계, 발화시의 문맥 등을 고려하여 19세기 말의 해요체와 해체에 보이는 용법상의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국어의 청자대우법은 주로 종결어미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청자대우법의 분류방식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먼저 중세 한국어의 청자대우법은 하쇼서체, 하야썌체, 하라체로 3등분된다(안병희 1965). 근대 한국어의 청자대우법에 관한 연구는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체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경우(1990)는 1920년대의 신소설에 나타난 용례 분석을 통해 신분과 성별이 근대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는데, 청자 대우등급을 하쇼서체,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로 7등분하여 분석하였다.²

현대 한국어의 청자대우법은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로 구분하는 6등분 체계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서정수 1984, 성기철 1987, 한길 1991, 국립국어원 2005 등). 그러나 한국어에 해요체와 해체가 학계에 처음 소개됐던 20세기에는 해요체와 해체를 대우등급으로 인정할 것인가, 혹은 대우등급으로 인정하되 대우등급 분류 시 등분 외로 보는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즉 20세기에 이루어진 현대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체계 분류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해요체와 해체의 대우등급 설정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요체는 본래 개화기에 일부 구어체 혹은 여성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나거나(민현식 1999) 중부지방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사용했던 표현으로(高永根 1974) 그 쓰임이 한정적이었다. 해체 또한 용례를 보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동료 혹은 부부 사이에서 가끔 사용되는 말씨로(이경우 1990, 윤나영·한영균 2020) 현재에 비해서는 그 쓰임이 한정적이었다.

한길(2002)에 의하면,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체계 분류 중에 해체의 ‘-아/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金熙祥(1911)이며 이후 최현배(1937), 이희승(1956, 1968), 김석득(1968) 등에서 반말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중 최현배(1971)는 “반말은 ‘해라’와 ‘하계’, ‘하계’와 ‘하오’의 중간에 있는 말이니 그 어느 쪽임을 딱딱히 들어내지 아니하며, 그 등분의 말맛을 흐리게 하려는 경우에 쓰히느니라. 그러므로, 반말은 아주 높임(極尊稱)이 아님만은 분명하니라” 하여 반말을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대우등급도 해라, 하계, 하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보았다. 해요체의 대우등급을 고찰한 연구 중에서는 해요체가 하오체와 합쇼체의 중간에 있다는 의견(蔴野他 1990)과 해요체를 준상칭법(準上稱法)이라 칭하며 하오체와 동일한 대우등급으로 분류하는 의견(이길록 1974) 등이 있다. 즉 해요체와 해체는 다른 대우등급에 비해 대우 정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徐正洙(1978)에서도 해요체와 해체의 사용 증가를 현대 한국어 경어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꼽으며 그 원인이 이들이 가지는 모호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윤용선(2006)에서는 해체, 특히 ‘-아/어’는 연결어미로 끝나는 말씨이기 때문에 말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청자와의 관계를 고정시키지 않고 부드러움과 친근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근대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연구는 당시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경우 1990, 김정호 2005 등). 다만 문학작품의 경우 작가의 개인적인 문체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입말성을 지니는 『新撰朝鮮會話』를 대상으로 사용주체와 문맥 등 언어외적 요인에 주목해 19세기 말의 해요체와 해체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新撰朝鮮會話』의

구성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자료

제3장에서는 『新撰朝鮮會話』의 사료적 가치 및 구성, 자료 정리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新撰朝鮮會話』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3.1. 구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890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는 군 목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서는 일본인의 관리하에 제작된 교재로 청일전쟁에 활용하기 위한 군사적인 색채를 띤 것이 많으나, 『新撰朝鮮會話』는 대부분의 회화가 일상회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색채는 전혀 없고 조선과 일본 양국의 무역과 교류, 또 외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新撰朝鮮會話』는 회화문에 한글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당시의 다른 한국어 학습서와는 달리 발음과 문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어와 회화문만 교재에 수록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장면에서의 생생한 대화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국어 회화를 배우려는 일본인 학습자에게 실용적인 교재라 할 수 있다.

『新撰朝鮮會話』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1장인 天道部(천도부)부터 제8장 時表部(시표부)까지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단어가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어 한글을 모르더라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9장부터 제30장까지는 회화문으로 각 장마다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0장 朝起の話(아침에 일어나는 말)에서는 친구들 사이의 대화, 제27장 朝鮮の四月初八日の話(조선의 사월 초과일의 말)에서는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제17장 漁夫の話(어부의 말)에서는 어부들 간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다양한 계층과 성별의 대화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1장부터 제34장까지는 형용사, 노래, 편지문, 지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책의 부록에 해당한다.

교재 내에서 회화를 담당하는 부분은 제9장 會話初門(회화초문)에서 제30장 日韓會話問答(일한회화문답)까지에 담겨 있다. 제27장에 수록되어 있는 회화문의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新撰朝鮮會話』의 회화문 예시(pp.126-127)

○夜ニ成ルト燈ハナゼ上ゲマスカ

●パムイ、トイメン、ワイ、トング、ウル、タオブニツカ

(1)은 일본어 본문과 이에 대한 한국어 대역을 제시한 것인데 일본어는 한자 및

가타카나로, 한국어 대역은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문을 기재할 때 원문대로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표현(가타카나)을 모두 표기하고,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부분은 현대어 어형으로 바꾸어 괄호 안에 넣기로 한다. 다만 일본어의 반복기호는 편의상 가나로 변환하여 표기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9장부터 제30장까지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9장부터 제30장에 수록된 화자/청자별로 관계, 친밀도, 성별 및 상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1와 같다. 대화의 격식도는 모든 대화에서 문맥을 통해 비격식적인 대화라는 점을 알아냈다.³

	대화 참여자	관계	친밀도	성별	상하 관계
제9장	이서방, 중원	첫만남	하	남-남	동등
제10장	A, B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제11장	A, B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제12장	A, B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제13장	A, B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제14장	A, B	-	하	남-남	-
제15장	A, B	-	하	남-남	-
제15장	A, C	손님-상인	하	남-남	상-하
제16장	A, B, C	친구-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제17장	A, B	동료-동료	상	남-남	동등
제18장	A, B	동료-동료	상	남-남	동등
제19장	A, B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A, B, C	손님-손님-종업원	하	남-남-여	상-상-하
제20장	A, B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제21장	A, B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제22장	A, B	-	하	남-남	-
제23장	A, B	-	하	남-남	-
제24장	A, B	-	하	남-남	-
제25장	A, B	-	하	남-남	-
	A, B	-	하	남-남	동등
제26장	A, C	환자친구-의원	하	남-남	상-하
	A, D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대화 참여자	관계	친밀도	성별	상하 관계
제27장	A, B	어머니-자식	상	여-?	상-하
제28장	A, B	친구-친구	상	남-남	동등
	A, C	학생-스승	상	남-남	하-상
제29장	A, B	-	하	남-남	-
제30장	A, B	-	하	남-남	-

표1. 『新撰朝鮮會話』 내 대화 정보

3.2. 자료 정리

본 연구에서는 술어문의 종결어미를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게체, 해라체, 해체로 6등분하여 정리할 것이다. ‘이다’의 경우에는 일부 ‘이오’(이오)로 적힌 용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요’(이요)로 실현된다. 또한 존경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 및 동사, 형용사의 어간 말에 오는 모음이 [i]인 경우에는 ‘오’와 ‘요’를 혼용한 경우가 많다.⁴ 본 연구에서는 ‘코시오’(곳이요), ‘코ンプ、ハーシヨ’(공부하시요?) 등은 ‘코시오’(곳이오), ‘코ンプハーシオ’(공부하시오?)의 음성적 변이형으로 판단하고 하오체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잇소 / 있어’처럼 하오체와 해체의 구별이 어려운 예문에 대해서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4.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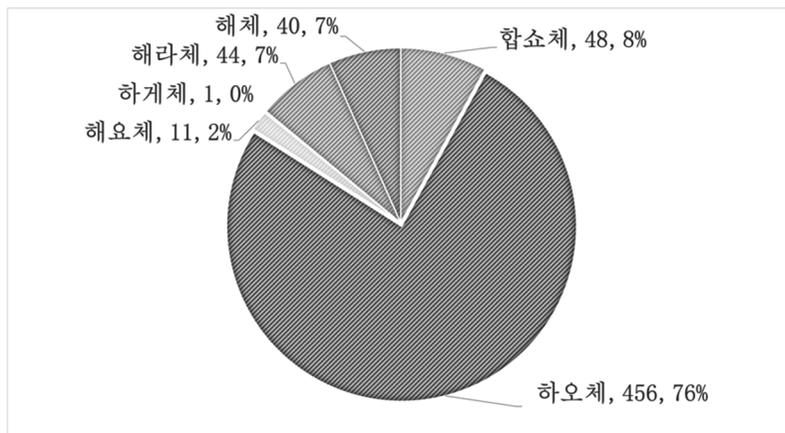


그림1. 『新撰朝鮮會話』 내 예문의 청자 대우등급(대우등급, 개수, 비율)

『新撰朝鮮會話』 내 청자 대우등급을 정리하면 위의 그림 1 과 같다. 전체 600 개의 예문 중 하오체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이는 당시 하오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오체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예외도 존재하나 ‘요킨하오’, ‘대기하오’, ‘카ッカ브

一ソ'(가깝소), 'アルムダブソ'(아름답소) 등과 같이 어간말자음의 유무에 따라 '-오'와 '-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오체는 특정 성별, 친밀도, 공식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화자 사이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아래 (2)와 같이 처음 만난 두 남자(중원, 이서방)가 서로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에서 하오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2) 第九 會話初門(제 9장 회화초문)

1 이서방: 名前ハ何ト云ヒマスカ

●クワンメンク、ウン、ムオシヨ(관명은 무엇이요?)

2 중원: 重元デス字ハ安國ト申シマス

●ヂウオン、イラハコ、チャヌン、アンクク、イラハーオ(중원이라 하고. 자는 안국이라 하오.)

3 이서방: 年ハ幾何デスカ

●ナイ、メーヂーヨ(나이 몇이요?)

4 중원: 庚午生レノ二十五デアリマス

●ケンオ、シヤング、スムルタソツシヨ(경오생 스물다섯이요.)

단 어머니가 자식에게(제27장), 손님이 여성종업원에게(제19장), 선생님이 학생에게(제28장) 쓰는 발화에서는 하오체 대신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하오체는 적어도 자신과 동등 혹은 자신보다 높은 화자에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사용되었던 하오체와는 대조적으로 해요체와 해체는 그 사용빈도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해요체가 해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19세기 말에는 신분제도가 제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분과 성별의 영향을 받는 청자대우법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대우정도가 모호하다고 알려진 해요체와 해체의 역할을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4.1.과 4.2.에서는 해요체와 해체가 발화 시에 어떤 전략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그 용례가 들어간 담화를 분석해 보겠다.

4.1. 해요체의 쓰임

『新撰朝鮮會話』에는 해요체가 총 11번 등장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일부 대화에서는 여성 화자도 등장하긴 하나 대부분 남성 간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해요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요'가 8번, '-아/어요'가 2번, '-고요'가 1번 등장한다. 먼저 용례가 가장 많았던 '-지요'의 용례를 살펴보면 아래 (3)과 같다. (3)은 친구로 보이는 두 남성이 아침에 만나서 농담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第十 朝起の話 (제10장 아침에 일어나는 말)

1 A: 晩方ハ勉強シマス

●チヨヤク、ウエヌン、コンブハーオ (저녁에는 공부하오.)

2 B: 弄談云ツテハイケマセン

●ノンクタム、ハーチ、マシヨ (농담하지 마시오.)

3 A: 否眞實タ眞實タ

●アーン、ヂヨンマルリヨ (아니 정말이요.)⁶

4 B: 昨晚貴君蚊ガ澤山居ルカラ勉強ガ出來ナイト云ヒマシタラウ

●オヂエバムウエヌン、イベン、モキカ、マニイ、イツソーソ、コンブハルス、オブ
タコ、パシヨツチヨ(어제 밤에는 노형 모기가 많이 있어서 공부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⁷

다음으로 ‘-아/어요’의 용례는 (4), (5)와 같다. (4)는 두 남성이 술을 마시러 가는 장면으로 한 남성이 여성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말했으나 여성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여 두 남성끼리 술을 마시는 내용이다. 대화에서 남성 손님은 여성 종업원에게 해라체인 ‘스르、ヂヨラ’(술 쥐라)를 사용하는데 여성 종업원은 남성 손님에게 ‘홀스ー、オブセヨ’(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해요체를 사용한다.⁸ 한편 친구 B는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894년 당시에 청자의 성별 및 신분예 따라 대우등급을 구별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한다(이경우 1990).

(4) 第十九 遠足の長話(제19장 원족하는 말)

1 A?: 酒ト膾ヲ持ツテ來イ

●스르、크와、안치우、카치요、오나라(술과 안주 가져오너라.)

2 女性従業員: ヘイ二十七番御酒一本

●니에、니시부칠반、스르한、페인그(예. 27번 술 한 병.)

3 A: 御前酌シテクレ

●야이、스르、ヂヨ라(애, 술 쥐라.)

4 女性従業員: ハバカリサマ

●홀스ー、オブ세요(할 수 없어요.)

5 B: 君御止シ玉へ

●노우헨、코만트와시요(노형 그만 두시오.)

6 アンナ醜イモノガ酌スルトカヘツテ無味イゼ

- クロンスングホンコシ、チヤンチル、ホメン、トリヨ、ムミハーヲ
(그런 흥한 것이 잔질하면 도리어 무미하오.)

(5)에서도 해요체가 등장하는데, (4)와 마찬가지로 비격식적인 문맥에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5)는 석가탄신일을 주제로 한 어머니와 자식의 대화인데, 자식은 합쇼체와 하오체, 해요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해라체를 주로 사용한다.

(5) 第廿七 朝鮮の四月初八日の話(제27장 조선 사월초파일의 말)

1 자식: 今年モ紙鯉ヲ上ゲマスカ

● 올레트、닌오、타아오(올해도 잉어 나오?)

2 어머니: 年々御前ノ爲メニ紙鯉ト燈ヲ上ゲマスヨ

● 옰옰이、노우술、우이호요、닝그오술、탄타

(연년이 너를 위하여 잉어를 단다.)

3 자식: 今年ハ立派ナ物ヲ上ゲタラ宜イデスネ

● 쿠무옰스님、치옰hon、코스ル、타스님코시、치옰오코(금년은 좋은 것을 다는 것이 좋아요.)

[중략]

4 자식: 夜ニ成ルト燈ハナゼ上ゲマスカ

● 팜이、토이멘、웨이、통그、울、타오브니츠키(밤이 되면 왜 등을 다옵니까?)

한편 ‘-고요’를 사용한 (6)은 남성들 간의 대화로, 조선의 의료 체계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아파 남성 A 가 의원에 가게 되는 내용이다. 약을 받고 B 는 A 에게 병문안을 가볼 것을 제안한다. (3)과 같이 (6)도 하오체를 주로 사용하는 대화이나 병문안을 제안할 때 말투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6) 第廿六 病疾の話答(제26장 병질의 화답)

1 B: 百姓ハ西洋ノ藥ヲ嫌ヒデスカ

● 피악송그、이、쏘양그、야쿠울、시로하오(백성이 서양 약을 싫어하오?)

2 A: 伊イエ癒リサヘスレバ宜イト思ヒマス

● 아니요、나츠키만、호멘、치옰타코호(아니요. 낫기만 하면 좋다고 하오.)

3 오야오야彼人ガ病ムテ居リマス子大變タ大變タ醫者ノ家ニ行ツテ來マセウ

● 오호야、치옰、살람이、핑그이、나츰、콘이르나츰、井온우へ、카츰
타올、리타 (오호 저 사람이 병이 났소/났어. 큰일 났소/났어. 의원에 갔다오리다.)

[중략]

4 B: 君病氣見舞ニ行キマセンカ

●ノウヘン、ペンダ、ボラ、アーニ、カシクヨ(노형 병 보러 아니 가시고요?)

해요체가 쓰인 대화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용법상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해요체는 존칭인 합쇼체와 하오체를 사용하는 대화에서 말투 전환(Style-shift)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高永根 1974, 민현식 1999 등)를 보면 해요체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어투이나, 위의 용례를 보면 ‘-지요’ 혹은 ‘-고요’는 남성의 발화에서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이 해요체를 사용할 때는 친구라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하오체와 함께 쓰인다. 단 연결어미 ‘-아/어’에 ‘요’를 붙이는 ‘-아/어요’는 여성 화자 혹은 어린 아이의 발화에서만 보인다. 특히 남성 손님에 대한 여성 종업원의 발화,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발화에서 보이는데, 대화 상대자인 남성 손님 및 어머니는 가장 대우등급이 낮은 해라체를 사용한다. 즉 의미기능을 갖는 ‘-지’나 ‘-고’에 ‘요’가 붙은 어형들과 달리 ‘-아/어요’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성이나 어린 아이의 어투로 볼 수 있다.⁹ 특히 교재를 작성한 홍석현이 상위 계층의 남성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 및 어린 아이의 발화에서만 ‘-아/어요’가 사용된 것은 19세기 말에 ‘-아/어요’가 여성어 및 아동어로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4.2 해체의 용법

『新撰朝鮮會話』에 등장하는 해체는 총 40번 등장하며, ‘-아/어’(11번), ‘-니깐’(6번), ‘-(으)ㄴ걸’(6번), ‘-(으)르까’(5번), ‘-지’(4번), ‘-고’(2번), ‘-기에’(2번), ‘-지만’(1번), ‘-건마는’(1번), ‘-(으)ㄴ데’(1번), ‘-(으)면’(1번)과 같은 어형이 등장한다. 해요체와 비교하면 용례 수뿐만 아니라 어형의 종류도 많다. 또한 ‘-아/어’가 가장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많이 등장하는 어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용례를 보겠다.

먼저 『新撰朝鮮會話』의 해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아/어’이다. (7)에서는 두 남성이 화로에 몸을 녹이며 겨울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눈은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두 친구 간의 대화는 대체로 하오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좋아’를 사용할 때는 A 와 B 둘 다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7) 第十二 冬節の話(제12장 동절의 말)

1 A: 市ガ大層穢ウムイマス

●キリ、タイタンニ、ヅロブソ(길이 대단히 더럽소.)

2 私ハ冬ガ過ギ去ツタノデ大變嬉シウムリマス

◎ナヌン、ケオルイ、チナカヌン、コシ、タイタンニ、ヂヨオワ(나는 겨울이 지나가는 것이 대단히 좋아.)¹⁰

3 B: 左様デスカ私モ冬ハ好ミマセン

◎クロハシヨ、ナト、ケウル、ルン、チヨヂーアンソ(그러하시요? 나도 겨울은 좋지 않소.)

4 其レデモ雪見ニユクト宜フムリマス

◎クレト、ヌン、クケンガイチヨワ(그래도 눈 구경이 좋아.)

다음으로 (8)은 A 가 C 의 시계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장면으로 시계를 사랑방의 시계와 맞추어 보니 C 의 시계가 50분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다. A 와 C 의 대화는 주로 하오체 및 해라체로 구성되어 있고 해체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8) 第十六 時間の話(제16장 시간의 말)

1 C: 少シ御待チ僕ノ時計ガ遅イカモ知ラン

◎チヤムカン、キタリシヨ、ネ、シケカ、トテツヌンチ、モルナ(잠깐 기다리시오. 내 시계가 더뎠는지 몰라.)

2 A: ソンナラ座敷ノ時計ト合セテ見マセウ

◎クロホメン、サラング、ウエ、シケワ、マツヂユオ、ボケツソ(그러하면 사랑의 시계와 맞추어 보겠소.)

3 C: 僭其時計ハ何時デスカ

◎タイヂヨ、クシケ、ヌン、ムスンシナトイヨツニ(대저 그 시계는 무슨 시나 되었니?)

4 A: 其レ其レ大變ダ五十分過ギタ

◎イコツボアラ、オシブブン、チナツタ(이것 보아라. 오십 분 지났다.)

(7)과 (8)의 ‘ヂヨ오ワ/치요와’(좋아), ‘모르나’(몰라) 외에 ‘-아/어’의 형태를 지니는 예문으로는 ‘치야무이와아’(잠이 와), ‘크로치안나’(그렇지 않아), ‘오치안나’(오지 않아)¹¹, ‘톤켄그、יאני야’(동경이 아니야) 등이 있으며, 모두 남성이 말한 문장이다. 이로써 여성들만 사용했던 ‘-아/어요’와는 달리 ‘-아/어’는 남성들도 사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어’는 친구들 사이에 격의 없이 사용된 표현인데 (7)에서는 감정 표현, (8)에서는 혼잣말로 추가 정보 제공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결어미 ‘-니깐’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9)에서는 A 가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있는 B 에게 시계를 어디에서 샀는지 물어보고 있다. 현대 한국어의 ‘-니까’는 원인 및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나 안주호(2006)에서는 연결어미 ‘-

니까'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19세기에는 원인 및 결과가 아닌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9)에 나오는 '-니깐' 또한 시계 자체는 동경에서 샀지만 유명한 브랜드인 천상당의 제품은 아니라고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9) 第十四 時計の話(제14장 시계의 말)

1 A: 日本ノ東京ニコナ悪イ時計ガアリマスカ

●ニルポン、トングケンウエ、イロハン、スングハンシケカイツソ(일본 동경에 이러한 흉한 시계가 있소?/있어?)

2 B: 否此ノ時計ハ天賞堂ノ時計デナイカラデス

●アニシケヌン、ヂヨンシヤングタンング、ウエ、シケカ아니、イツ칸(아니 이 시계는 천상당(天賞堂)의 시계가 아니니깐.)

그 외에 다른 어형들을 보면 '-지', '-(으)니까'는 종결어미이나 대부분 연결어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연결어미인 '-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해체가 쓰인 대화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용법상의 특징이 있다. 우선 해체는 대부분 연결어미로 구성되어 있다. 이희승(1956)이 해체는 “해라도 아니오, 하게도 아니오, 하오도 아니오, 말을 그저 어물어물하며 끝을 아물리지 않는 말”이라고 말한 것처럼 해체는 형태적으로 모호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해체는 해요체와 마찬가지로 존칭인 하오체를 사용하는 대화 혹은 하오체와 해라체를 기본으로 하는 대화에서 말투 전환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나 아이의 발화에도 나타나는 해요체와 달리 해체는 주로 남성들의 대화에서 관찰되었으며 같은 화자의 발화 중에서 해체의 '-아/어'와 해요체의 '-아/어요'를 혼용하는 예는 없었다. 우연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해요체의 '-아/어요'가 여성어 및 아동어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5. 고찰

제5장에서는 『新撰朝鮮會話』에 등장하는 해요체와 해체의 용례를 바탕으로 해요체와 해체가 19세기 말에 담화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였는지 살펴보겠다. 해요체와 해체의 대우등급을 보면 다른 격식체(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에 비해선 모호한 편이다. 특히 해체의 경우 연결어미에서 끝내는 형태를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적 모호성은 청자를 윗사람으로도 아랫사람으로도 특정하지 않는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겨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인 (7)을 보자. 두 남성 간의 대화는 대체로 하오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좋아'에서는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하오체는 존칭이기 때문에 사용 시 다소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청자 대우법이다. 따라서 화자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해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감정 표현을 나타낼 때는 청자 지향성이 약해지는데, 이 때 대우등급이 명확하게 비존칭인 해라체보다 청자 대우등급이 모호한 해체를 사용함으로써 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하향식 말투 전환(Down Style-shift)의 효과를 의도한 담화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三牧 2000). 이러한 담화전략은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9)에서도 보인다.

연결어미에 첨사 ‘요’가 붙은 해요체도 존칭인 합쇼체와 하오체 사이에서 말투 전환을 할 때 사용되는데, 이는 해체와 같이 말투 전환을 통한 심적 거리 축소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를 보면 자식은 주로 어머니에게 합쇼체 혹은 하오체를 사용하는데, 이들 대우등급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비격식적인 해요체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좋아요’의 경우 청자지향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격식체를 더 쓰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말 조선의 상위 계층 지식인이었던 홍석현이 저술하여 일본에서 출판한 『新撰朝鮮會話』(1984)에 등장하는 용례를 분석하여 해요체와 해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新撰朝鮮會話』에 나타난 청자 대우등급을 정리하여 해요체와 해체의 사용주체와 문맥 등 언어외적 요인에 주목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新撰朝鮮會話』의 대우등급을 정리한 결과, 하오체의 사용 비율이 전체의 76%로 가장 높은 것을 통해 19세기 말의 주된 대우등급은 하오체임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1894년 당시에는 갑오개혁을 통해 막 신분제가 제도적으로 폐지되었으나 화자의 성별 및 신분에 따라 대우등급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사회적 변이(Social Variation)는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의 화자가 하오체와 해요체, 또 하오체와 해체를 가려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화자가 하나의 담화 내에서 청자나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대우등급을 가려 쓰는 것은 스타일 변이(Stylistic Variation)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해요체는 비격식적인 구어체적 성격을 띠는데, 그 중에서 ‘-어/아요’는 여성 및 어린 아이의 발화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체는 화자의 감정표현, 혼잣말 투의 추가 정보 제공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한 해체의 ‘-아/어’는 여성 및 어린 아이만 사용했던 ‘-아/어요’와는 달리 성인 남성들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 하오체가 기조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해체는 분위기를 다소간 부드럽게 하고 청자와의 심적 거리를 좁혀

친근함을 나타내는 하향식 말투 전환의 효과를 절묘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감정표현이 담화적으로 청자 지향성이 약하여 청자에 대한 대우상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말의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해요체와 해체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해요체와 해체는 19세기 말에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이기 때문에 분석 시 용례가 다소 적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의 사회언어학적 쓰임을 고찰하여 근대 한국어에서의 해요체와 해체의 정착 과정에 대한 논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22년 3월 18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도쿄대학 언어변이·변화연구회(UTLVC)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연구발표회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의 방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신 다나카 신이치(田中伸一) 교수님, 한국 중앙대학교 양내윤(梁乃允) 선생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고의 개선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공동저자이신 이길용(李吉鎔) 교수님(†2020년 8월 25일 별세)께 바칩니다. 본 논문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임을 밝힙니다.

주석

- ¹ 1894년 2월에 도쿄고등상업학교(東京高等商業學校)에 조선어과가 새로 창설되었는데 이는 청일전쟁으로 인한 것이다(山田 2004). 또한 1894년에 발간된 많은 교재에서 ‘대포’, ‘군함’과 같은 어휘들이 등장한다는 점과 명령형이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을 통해 당시 대부분의 한국어교재가 군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成玟娥 2009).
- ² 여성은 신분에 관계없이 남편에게 하오체를 사용하나 남성의 경우 신분에 따라 아내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의 등급이 다르다. 상위계층의 남성의 경우에는 아내에게 하오체를 사용하지만 중간계층의 경우에는 하계체, 하위계층은 해라체를 아내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 1990).
- ³ 교재의 각 장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기재하였다. 관계, 친밀도 및 상하 관계는 대화의 문맥에 따라 구별했는데 제 14 장, 제 15 장, 제 22 장 등의 경우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관계성 및 상하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 및 상하 관계는 ‘:’로 처리하고, 친밀도는 ‘하’로 처리하였다. 성별 정보는 문맥(제 19 장에서 남자 손님이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청하는 점에서

종업원이 여성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등장인물 간 호칭(노형, 어머니 등) 및 등장인물의 이름(이서방 등)을 통해 추론하였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는 자식의 성별을 알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로 처리하였다.

- 4 언어보편적으로 모음 연속은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Casali 1997). 모음 연속을 회피하기 위해 언어마다 모음 융합, 모음 삭제, 이중모음화 등 다양한 음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오’(/io/)가 이요’(/iyo/)로 변화하는 것도 모음연속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 5 한자표기가 ‘重元’(중원)으로 되어있어 가나 표기와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자표기를 따라 ‘중원’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 6 일본어 대역을 보면 ‘アーン’은 ‘アーニ’의 오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 7 일본어 대역을 보면 ‘イベン’은 ‘ノウヘン’, ‘バシヨツチヨ’는 ‘ハシヨツチヨ’의 오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 8 ‘ホルサー、オブセヨ’(할 수 없어요)의 일본어 대역은 ‘ハバカリサマ’인데 일본 국어 사전 중 하나인 『大辞泉』에 의하면 이 표현은 본래 감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나 반어적으로 상대를 비꼬면서 거절하는 기능도 지닌다고 한다. 단 이러한 기능이 ‘ホルサー、オブセヨ’(할 수 없어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 9 ‘-지’는 ‘이미 앓’ 등의 양태 의미를 지니고(박재연 2006) ‘-고’는 열린 종결을 통해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낸다(장경현 2012).
- 10 일본어 대역을 보면 ‘ケオル’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어를 가나 표기할 때 표기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교재 제 3 장 萬物部에서는 앵두를 ‘アーンクト’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 11 ‘그렇지 않나?’ 및 ‘오지 않나?’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일본어 대역이 ‘ソウデアリマスマイ’, ‘降りマセン’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서문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참고문헌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66-91.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석득(1968), “現代 國語 尊待法の 一致와 그 擴大構造”, 국어국문학, 41, 국어국문학회, 106-112.
- 김정호(2005), “1920년대 청자 높임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94-98.
- 金熙祥(1911), 朝鮮語典(역대한국문법대계 1-19), 탑출판사.
- 민현식(1999), “개화기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163-234.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 성기철(1987), “現代國語 待遇法”, 국어생활, 9, 국어연구소, 107-111.
- 안병희(1965), “십오세기국어(十五世紀國語) 공손법(恭遜法)의 한 연구(研究)-이인칭대명사(二人稱代名詞) 『그디』와 관련(關聯)하여-”, 국어국문학, 28, 국어국문학회, 117-126.

- 안주호(2006), “현대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적 특성과 형성과정”,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71-91.
- 윤나영, 한영균(2020), “1910년대 소설에서 나타난 상대높임법 연구-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대화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49, 한국어문학회, 99-123.
- 윤용선(2006), “국어 대우법의 통시적 이해”, 국어학, 47, 국어학회, 354-376.
- 이경우(1990), “최근세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애산학보, 10, 애산학회, 65-84.
- 이경우(1994), “갑오경장기의 문법”,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원, 74-99.
- 이길록(1974), 국어문법연구, 일신사.
- 이희승(1956), 고등문법, 박문출판사.
- 이희승(1968), 새문법(역대한국문법대계 1-58), 박이정.
- 장정현(2012), “연결어미에서 기원한 종결어미의 의미 연구-‘-고/-는데’의 담화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8, 한국어의미학회, 109-134.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 한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 徐正洙(1978) 「韓国現代敬語法の推移-最近の設問調査をもとにして-」『朝鮮學報』 89, 1-26.
- 成玗珂(2009) 「日清戦争に使用された朝鮮語會話書 : その特徴と日本語の様相」『日本語學論集』 5, 94-108.
- 高木丈也(2012) 「日本語と韓国語の談話におけるいわゆる 「中途終了発話文」 の出現とその機能」『社会言語科学』 15(1), 89-101.
- 松村明(編)(1998) 『大辞泉(第一版、増補・新装版)』小学館
- 三牧陽子(2000) 「丁寧体基調の談話にみる独話的発話・直接引用・心情の直接表出-「働きかけ方式」のポライトネス・ストラテジーとして-」『多文化社会と留学生交流』 4, 37-53.
- 山田寛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 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不二出版
- Casali, R. F.(1997). Vowel Elision in Hiatus Contexts: Which Vowel Goes? Language, 73(3), 493-533.